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7월 11일(목)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한-노르웨이 간 해상풍력, 핵심광물, 해양,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모색 -
- 가치 공유국으로서 인태 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위한 협력과 공조 강화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11, 목) 오전 「요나스 가르 스토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노르웨이는 6.25 전쟁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면서, 올해 한-노르웨이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한-노르웨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자고 하고, 한국이 해상플랜트, 조선, 항만 인프라 구축, 방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해상풍력, 핵심광물, 해양(녹색해운), 방산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토틀레 총리는 지난해 NATO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도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면서, 방산, 해양, 해운, 해상풍력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된 도발과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끝>